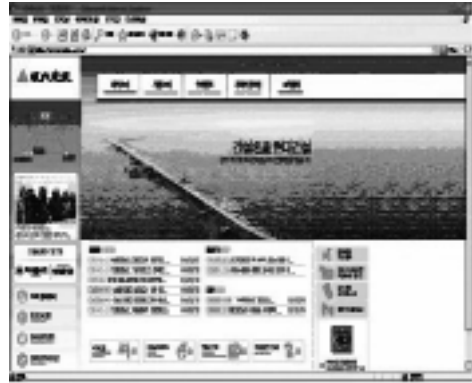


▲ 現代建設株式會社



국개 최대의 종합건설사

현대건설은 1947년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현대토건사를 모태로 올해 창립 57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종합건설회사로 토목, 건축, 플랜트, 전기, 해양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58년 전후(戰後)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한강대교(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경인고속도로 공사를 비롯해 댐 공사, 항만 공사 등 60년대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간산업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70년대 초 국내 최초의 고리 원자력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건설된 국내 원자력발전소 총 18기 중 12기를 시공, 국내 원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원전 시공기술 자립도 100%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렇듯 현대건설은 지난 50여년 간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국내의 대표적인 도로, 교량, 댐, 주택을 대부분 시공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과 시공능력, 시공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40여년간 국내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다.

해외에서는 지난 1966년 한국 건설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행한 이래 70년대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20세기의 대역사(大役事)라 불리는, 당시 1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역작을 남겼다.

최근에는 이란에서 총 25억달러 규모의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사이자 초대형 가스 처리시설 공사인 사우스파 가스 처리시설 2·3단계, 4·5단계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란은 물론,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중동, 동남아, 미주 등 전세계 47개국에 진출하여 600여 건의 공사를 수행하며 미화 45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수주고를 기록, 세계 건설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건설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회사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2003년 7월에는 세계적 건설전문지(誌) 미 'ENR'에 의해 세계 14위의 건설업체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대표 고속도로 · 교량 · 지하철 건설

현대건설은 1957년 한강대교(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양화대교(제2한강교), 한남대교(제3한강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등을 시공하며 민족의 젖줄인 한강 대부분의 교량을 건설했으며, 낙동대교, 진도연륙교 등 많은 교량을 건설, 교량에 관한 한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4년 붕괴된 성수대교 보수공사와 99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연륙교 공사 등을 수행하며 계속해서 입증 받고 있다.

현재도 마포대교 확장 · 포장 공사, 한남대교 확장 · 개선 공사, 잠실대교 확장 · 포장 등을 시공하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교량 공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60~70년대 경제 발전 신화의 상징이기도 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68년 착공해 73년 완공함으로써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를 개막시켰으며, 호남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달아 개통시켜 한국의 대표적인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호남 · 남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올림픽 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를 완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해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대구-포항 고속도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수행중이다. 이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건설에 있어 높은 실적과 기술력을 유지 · 발전시키고 있다.

제2의 도로나 다름없는 지하철 건설에서도 현대건설은 1971년 서울역~청량리간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착공, 74년 국내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시킨 이래 한국 대표 건설사다운 업적을 기록 중이다.

현대건설은 서울지하철 2호선(6-12공구), 서울지하철 3호선(327공구), 부산지하철(1-8공구, 1-10공구, 2-10공구) 등을 잇따라 시공했으며, 특히 90년에는 난공사 구간으로 손꼽힌 서울지하철 5호선(5-17공구) 여의도 구간 공사를 수행하며 탁월한 기술력에 바탕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받은 바 있다.

최근에도 현대건설은 대구지하철 2호선 중 터널 공사 등을 포함한 12공구, 4공구를 건설한 바 있으며, 광주도시철도 1호선(TK-2공구, 1-7공구) 등을 시공하며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2004년 한 해 건설명가로서 재도약

현대건설은 2004년 한 해 수주목표로 국내 6조2,000억원 해외 12억달러 등 총 7조6000억원, 매출목표로 4조6,069억원을 설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를 경영 정상화 원년으로 삼아 경영 투명성 확보, 인재 양성, 수주역량 극대화, 효율적 조직 운영, 고객만족·주주 이익 극대화 등 5대 경영 목표를 추진하며 건설명가의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수주 영업의 활성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회사의 명예 회복 등 3대 주요 목표 실현에 매진한 결과, 신고리 원전 1·2호기 주설비 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 총 7조1,182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도 상승을 통해 충분한 공사 물량을 확보하고, 차입금 감소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이 이뤄져 신용등급이 기존의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되는 등 대외 신인도가 개선됐으며, 지속적인 흑자 경영을 실현, 흑자 기초를 정착시켰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지난해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을 명실상부한 경영 정상화 원년으로 삼아 건설명가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경영 투명성 확보, 인재 양성, 수주 역량 극대화, 효율적 조직 운영, 그리고 고객만족과 주주 이익 극대화 등 5대 경영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특히, 수주 극대화, 매출 극대화, 이익 극대화 등 '3多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좋고 이익이 많은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이익 증대를 통한 경영 실적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안전사고·고객 불만족 최소화 등에도 주력해 본사와 현장 모두 3%의 원가 절감을 달성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들 주요 경영 목표 실현과 수주 및 매출 목표 달성을 통해 현대건설은 2004년을 경영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설명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미수금 회수

현대건설은 3월 22일 미국 임시 행정처(CPA :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산하의 이라크 재건 공사 시행위원회(PMO : Program Management Office)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화 2억2,000만 달러(한화 약 2,600억원)에 수주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이라크 재건사업을 수주하게 됐으며,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이라크에서 사업을 펼치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발주될 이라크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5일 실시된 5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에 미국 유수의 건설사인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International Inc.)의 파트너사로 입찰에 참여해 워싱턴 그룹이 수주한 11억달러 규모의 공사 중 최소 2억2,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됐다. 또한, 워싱턴 그룹의 수주 금액의 20% 이상을 현대건설이 수주한다는 협력합의서에 따라 향후 수주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워싱턴 그룹과 현대건설이 시공할 분야는 이라크 전 지역의 댐 및 관개시설 복구공사와 이라크 북부지역 송전·배전 복구공사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일반적인 해외공사 계약방식인 확정금액 형태와는 달리 실제 투입되는 시공비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므로 투입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고수익 공사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향후 이라크 건설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77년 이라크에 처음 진출한 이래 90년 걸프전 발발 전까지 이라크에서만 총 27건, 41억달러 규모의 도로, 주택, 발전소, 철도, 상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공사와는 별도로 현대건설은 걸프만 출구인 '샤트 알아랍 수로' 준설 공사와 발전소 공사, 건축 분야에서도 약 1억6,000만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가 조만간 수주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향후 수주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향후 5년간 총 184억달러 규모로 집행될 미국 지원자금을 의한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에 미국 유수 건설업체들과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약 5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일본 지원 자금을 의한 재건공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이번 이라크 진출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11억400만달러(한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이라크 미수금 회수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워싱턴 클럽(Washington Club) 결성 준비와 미국 정부 고위 관련인사 접촉을 통해 이라크 미수금 회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조만간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신정부 지도자들과 직접 접촉, 미수금 회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기술력의 산실, 기술개발원

현대건설 기술개발원은 89년 10월 계동 본사 사옥에서 종합건설기술연구소로 출발해 90년 8월 기업

현대건설주식회사

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다. 96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현대그룹 연구 단지 내에 연건평 5,000여평의 연구동 및 제 1·2 실험동을 신축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술개발원은 현대건설이 세계 10대 건설회사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의 자립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방침은 첫째, 기술 경쟁력을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신규 공사 수주 지원,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둘째, 생산관리 기술, e-Construction 기술, Mechatronics 기술 등의 미래지향 기술 개발, 셋째, 사업부 핵심역량 강화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 지원, 마지막으로, 기술전략 및 정책수립 등의 전략경영 지원이다.

그간 기술개발원은 우수한 연구인력 운영을 통한 자체 개발연구와 국내·외 우수기관의 産·學·研 위탁(협동)연구로 총 230여건의 기술개발 실적을 쌓았으며, 향후 연구개발도 분야별 중기 프로젝트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지하공간, 초고층, 도로포장 등의 분야에서 9건의 해외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신기술, 특히, 실용·의장, 상표권,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권 개발과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서강대학교 닐슨 아치(Nielsen Arch)교의 대선식 일괄 가설 신공법, 초연약지반의 표층 자연건조 처리공법, 연약지반에서의 블록샘플링 기술, 저소음형 병렬식 기류유인 팬의 제작 및 설치기술, PE 개량 EVA 시트와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복합방수 공법 등 8건의 신기술을 등록하였으며, 6건의 신기술을 출원한 바 있다.

2004년을 맞아 기술개발원은 본사 내의 설계 조직과 통합, 확대 개편함으로써 기술영업 능력의 강화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코자 하고 있다.

기술개발원은 장기 발전목표 즉, 2005년 선진국 건설업체 주요 기술 확보, 2008년 선진국 연구소와 대등한 수준, 2011년 세계적 특화기술 개발 및 보유라는 실천목표를 세우고 3개 기술부에 7개 팀, 15개의 실험실, 기술부를 지원하는 기획관리부로 구성된 기술연구소 60여명과 설계실의 60여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연락처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746-2150 FAX. 02)746-2120



디지털엔지니어링구현

(주)경동기술공사(회장 강성묵, <http://www.kdec.co.kr>)는 1989년 대전에서 설립 15년여 동안 토목 분야의 설계 및 감리에 외길로 정진 현재 전문기술사 45명에 360여명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는 대규모의 전문기술용역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국가 기간산업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건실한 종합 엔지니어링업체로 성장 관련분야에 그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주)경동기술공사는 21세기 다변화하고 기술우위시대에 한걸음 앞서가기 위하여 지역의 동종업계 최초로 KS A/ISO 9001인증서를 획득 품질보증을 제일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기술용역업의 엔지니어링 분야에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분야를 포함한 19개분야에 신고를 하였고, 토목 및 건축의 종합 감리업, 소방 및 전기공사 감리업, 설계 감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군보안측정 유자격 업체, 교통영향평가업, 공공측량업,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 수치지도 제작업 등 총37개 주요분야에 등록, 면허를 갖추어 전국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경동만의 고도의 노하우를 각지에 심었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수원~남이), 중부고속도로(여주~구미), 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 청주~상주간 고속도로(서상주~상주), 서해안고속도로(서천~당진), 전주~광양(순천)간 고속도로], 국도 설계 및 감리 [옥천~고당간 설계및감리, 공주~정안간 설계및감리, 백제역사촌 진입로 설계및감리, 금남~조치원간 설계및감리]와 신도시개발 설계 [양산물금지구, 아산국가공업단지(포송지구), 용인죽전지구 신도시, 아산 배방지구 / 용화지구 신도시, 대전가오지구 신도시, 대전서남부권 신도시개발] 등에 참여 자연 친화적이며 이용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및 감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단개발, 공원 및 항만개발 등을 통하여 그 입지를

(주)경동기술공사

확고히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발전연구원 등에서 건설 기술 자문 및 심의활동으로 우리 고장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에는 해외 건설사업에도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도 기술협정을 체결 운영중이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고 사내의 전산화 업무를 일단계 전진시키기 위하여 건설CALS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필요 장비를 구입 각종 정보를 표준화, 전자화하여 통합관리하였으며, 건설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CALS(설계) 선도 시범업체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었으며, 또 감리분야(CITIS)에도 전국 최초로 시범업체로 선정되었다.

산·학 협동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향상

(주)경동기술공사의 강성목 회장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의 한 방법으로 신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지역의 충남대, 공주대, 대전산업대, 우송대, 청양대, 천안공업대와 산학연대를 통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에 노력 총 51건의 신기술을 개발 및 특허로 등록하여 실용화하고 있는 중이다.

(주)경동기술공사는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을 계속 채용하여 대기업도 하기 힘든 인력의 사회진출을 도모하였으며, 전 임직원이 합심·동결하여 「진취적 사고」, 「기술의 향상」, 「인화와 협동」의 사훈아래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품질방침을 근간으로 품질의 끊임없는 개선,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국내 제일의 엔지니어링 업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락처

본사 : 충청남도 천안시 오룡동 33-1

TEL. 041)555-4733 FAX. 041)563-0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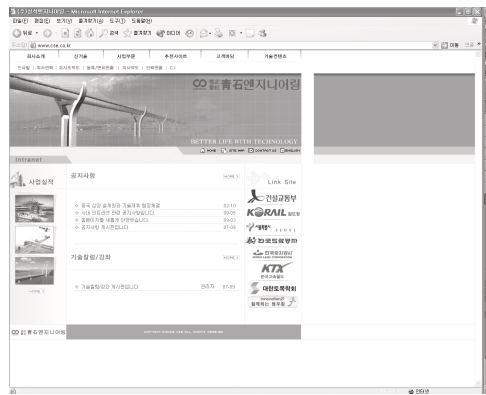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914 경동빌딩

TEL. 042)480-9500 FAX. 042)480-9599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2

TEL. 02)2203-6503 FAX. 02)2203-6506

(주)청석엔지니어링



최고의 기술력과 자연중심관을 바탕으로 21C를 선도하는 기업

(주) 청석엔지니어링(대표 회장 정희용, <http://www.cse.co.kr>)은 1984년 11월에 창립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인 토목 전분야를 설계·감리하는 종합 용역전문회사로서 도로·철도·구조·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 등 20여개 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의 기술력과 자연중심관을 바탕으로 21C를 선도할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두기업이다.

(주)청석엔지니어링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오직 의존할 수 있는 자원은 잘 교육받은 인적 자원”임을 모토로 (주)청석엔지니어링을 이끌어가는 정희용 회장을 중심으로 토목, 기술, 환경, 감리, SOC, 관리의 6개본부를 주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사 및 박사 약100여명이 사업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특히 도로, 철도, 지하철, 구조, 터널, 지반에는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약 500여명의 기술인력이 각 해당분야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우수·우량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시장에서도 우뚝 설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이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주) 청석엔지니어링 대표 정희용회장은 “21C에는 성실과 노력을 기초로 창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기술개발 및 가치추구의 성과가 기업의 성쇠를 결정질것”이라 단언한다. 이는, 1인1색의 다양성, 시시각각 변화하는 급변성 및 지식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현대 세계정세속에서는 과거의 성실과 노력만으로는 가치창출의 한계가 있고, 기업의 존립자체마저도 위협하기에 창의적 사고방식을 토대로한 기술개발, 저비용

(주)청석엔지니어링

고효율 업무시스템, 시대적 트렌드 및 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선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청석엔지니어링은 턴키 및 대안입찰을 집중공략, 기술경쟁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도로분야에서 굴포교 가설공사, 충주우회도로, 청계천복원공사(제1공구), 국도25호선 대체도로(용동~동읍)등 턴키 및 대안설계에 대한 수주 및 기술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과 기업이 하나되는 체온커뮤니티 구축

(주)청석엔지니어링은 임직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초로 가족들을 제2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기업과 하나되는 체온 커뮤니티의 실천으로 회사의 초석을 굳게 다져가고 있다.

(주)청석엔지니어링 대표 정희용회장은 매년 임직원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체력단련대회(2004년 제5회 개최, 참석인원 1,000여명)를 개최하여 직장과 가족간, 직장동료간, 동료가족간의 커뮤니티가 감성을 중시하는 체온커뮤니티의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절제된 경영으로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해 임직원의 노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소속감, 프로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재확보와 육성

(주)청석엔지니어링은 매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토목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을 매년 공채를 통한 인력구조의 효율화 및 정예화에 바탕을 두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은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은 첨단기술과 인재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임을 인지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및 업무능력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R&D 분야의 활성화

(주)청석엔지니어링은 R&D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설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기술2건, 특허

(주)청석엔지니어링

10건, 실용신안 20여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건교부에 의해 신기술(제40호)로 지정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Segment를 이용한 복개 아치공법”은 고속도로(동해9공구, 대구-포항 2공구, 경부확장2공구) 및 철도(경춘선 5공구)등에 적용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15%) 효과를 창출하였고, “Preflex Girder신공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설계하여 국내 다수의 교량과 건축물에 적용되어 현재 일반화 되어 있다.

(주)청석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없는 성장은 장기적 성장과 고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R&D분야에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개발에 꾸준한 투자와 임직원의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해외사업추진계획 및 회사 발전방향

(주)청석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서만 활동으로는 성장의 제약을 이해하고 해외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현재 중국 심양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양시 시정 공정설계 연구원과 수차례의 상호방문 및 협의를 걸쳐 2003년 12월 23일자로 중국 심양시에서 심양시 건설국 관계자 및 언론사의 관심속에서 양사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국 및 제3국에서의 대규모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등에 참여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 협력동의를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주)청석엔지니어링은 중국진출을 해외사업의 교두보로 아시아 및 중동진출을 계획중이며, 더 나아가 유럽 및 미주지역 진출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청석엔지니어링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적 성장에서 고객만족과 가치창조를 통한 내실있는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선진경영기법의 습득 및 조직의 핵심역량을 제고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 연락처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7

TEL. 02)4050-114 FAX. 02-4050-050